



“내실다져 수산업기반조성 위한
최고의 공공단체로 도약,”

존경하는 어촌어항인 여러분!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고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전 해양수산인이 힘을 모아 2012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모토로 한 여수세계 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러한 결과를 내었다면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성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난 12월 7일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상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태계파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사업을 대과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어촌·어항발전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업무를 실시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협회의 진면목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어항시설물과 어항 및 연안정화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어항시설물 안전점검업무로 협회의 기술력을 인정받음은 물론 어항청소선 및 다기능수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함께 연안수역 정화·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촌·어항의 관광진흥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도시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기술교류회의 개최와 해외어촌어항어장조사단 파견으로 외국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 증진에도 힘썼습니다.

올해는 17대 대통령이 선출된 첫 해로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협회는 새해에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 협회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더욱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촌·어항·어장의 연계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어항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어항 기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항 및 연안수역의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어촌·어항의 관광 진흥 및 문화 창달을 활발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변화의 큰 물결에 합류하여 연안역의 종합발전과 수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최고의 공공단체로 도약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활력있는 수산업
살기좋은 어촌조성에 최선을 다할 터,”



해양수산부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찬 무자년(戊子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원하던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시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산물 이력제 확대, 「수산물품질관리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제정 등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산업 선진화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합 해양행정의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우리부의 미래에 대하여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해양시대'에 걸맞는 우리부 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보다 충실히 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정책들은 가다듬어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책들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수산업, 살기좋은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과 수산물 안전관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특히, 수협 경영정상화, 자율관리어업의 확대, 어촌 관광 활성화 등에 총력을 기울여 수산업의 자생력 회복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바다로부터 인류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해양의 세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양부국 실현',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해양수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 함께 전진합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